

마인츠중앙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ir heißen alle herzlich willkommen und segnen im Namen des Herren.

- 하반기 성경필사에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과 간증문을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필사자: 고광진, 김문영, 김유진, 김윤정, 김호영, 남윤범, 박정애, 민춘강, 엄선형, 이미진, 이수혜, 이승기, 인혜진, 제이선, 최연원, 한상순)
- 방역지침(2G)에 따라 현장 예배 참석 인원이 27 명으로 제한되었습니다. 현장 예배 참석자는 명단을 작성하시고 모든 예배에 미접종자 참석은 불가합니다.
- 1부 예배 후 2022년 구역편성을 위한 구역장 모임이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2부예배가 오후 3시에 있습니다. 1부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 12월 24일(금) 청년예배 후 성탄 음악회가 있습니다. 녹화 후 공유합니다.
- 다음 주일은(12월 26일) 성탄예배로 드립니다.
- 12월 31일(금) 송년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 2022년 서리집사명단 (가나다 순)
고광진, 고윤진, 구은경, 기현서, 김계성, 김나리, 김미라, 김민성, 김영균, 김예랑, 김유진, 김윤정, 김정현, 김주영, 김태용, 김호영, 남윤범, 다빗 트랜츱, 류 현, 박경애, 박도실, 박상기, 박영두, 박정애, 배형만, 서문희, 신시라, 신진욱, 안성희, 양명숙, 양선영, 엄명용, 엄선형, 오진주, 우승혜, 유 샘, 유정훈, 윤나라, 윤석민, 이민성, 이민지, 이승빈, 이승현, 이유정, 이재현, 이혜설, 인혜진, 장바우, 장은준, 정복순, 허 원, 황부원, 한상순, 한은석, 한은희, 현은진 (56명)

Freue dich über den HERRN, und er wird dir geben,
was du dir von Herzen wünschst (Psalm 37:4)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4)

제36권 51호 2021년 12월 19일

※ 표는 일어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 주일예배 1부 12:00 / 2부 15:00

인도자 : 한성호 목사

찬 양 (2부)	Lobpreis		찬양부
※ 묵 도	Eingangsgebet		다함께
※ 찬 송	Lobpreis	28 장	다함께
※ 신앙 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함께
성시 교독	Wechsellesung	118 문	인도자
대표 기도	Gebet		이태성 장로
봉 헌	Kollekte	211 장	다함께
성경 봉독	Schriftlesung	신명기 18:15-20	인도자
찬 양	Lobpreis	주님을 찬양하라	성가대
말씀 선포	Predigt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한성호 목사
광 고	Abkündigungen		인도자
※ 찬 양	Schlusslied	마라나타	다함께
※ 축복 기도	Segen		한성호 목사

▲ 수요기도회 수요일 20:00

본당 예배

한성호 목사

섬김이		예배 위원			교회 후원 선교지
담임목사	시무장로	날 짜	기 도	안내	
한성호	소병찬	12.19	이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르키스탄(다니엘 P) • 코소보(S00) • 독일 쾰른(N00) • 케냐(L00) • 베트남(L00) • 타지키스탄(L00) • 마다가스카르(B00)
교육전도사	이정수	12.26	이정수		
장재성	이태성	01.02	소병찬		
		01.09	이혜영		

누가복음 2:11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Lukas 2:11 denn euch ist heute der Heiland geboren, welcher ist Christus, der Herr, in der Stadt Davids.

예배 안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2:00	본당	주일학교예배	영유아/유치 유년 / 초등	주일 12:00	별관
주일 2부예배	주일 15:00	본당	청소년부예배		주일 12:00	별관
수요일예배	수요일 20:00	본당	청년부예배		주일 12:00	별관
					금요일 20:00	본당

성경 필사 간증문

성경필사는 코로나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약 가운데 하나님과 나 자신을 이어주는 통로였습니다. 눈으로 읽고, 손으로 쓰고, 머릿속으로 장면들을 상상하면서, 동시에 귀한 말씀을 마음 속에 새김으로써 "종합적인 말씀 이해하기"를 가능하게 해준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성경필사는 특히 물리적으로 상당한 양이어서 매일 규칙적으로 써야했고 'Daily Q.T.' 처럼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을 습관화 해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필사가 제게 가져다 준 큰 유익이었고 삶의 변화였습니다.

오롯이 말씀과 함께 하는 시간은 자칫 소망을 잃어버리기 쉬운 메마른 이 때에, 단비와 같이 삶에 평안과 충만함을 주었고 끊임없이 마음을 새로 하고 느슨해지는 신앙생활을 점검하게 해주었습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주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 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필사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신앙생활의 발전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라 확신하며 더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권면합니다. - 김윤정집사

할렐루야,
이번 필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몇가지 나눕니다.

사실 시작하기전에는 필사양이 90장이나 되는것을 보고 부담이 많이 왔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길지 않았는데... 너무 길다... 과연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필사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가 되었을때 아침에는 힘을 얻고 밤에는 말씀 안에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매일매일 삶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동안 그러지 못했던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10일간 밀알 사역을 위해 방문 중에도 가능한 매일 하루의 사역을 마치고 필사를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말씀과 기도가 없이 했던 봉사와 찬양은 결국 내가 좋아하는 일, 나의 일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할때 반드시 기도와 말씀 묵상이 함께 가야 하나님의 일인 것임을 다시한번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말씀이 나의 매일 삶의 나침반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필사의 귀한 시간을 경험하게 해주신 장년 교육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 남윤범집사

저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것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성경쓰기를 하였습니다. 의무란 하기 싫어도 해야하는 것이고 또 기쁘나 슬프나 언제나 해야한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의무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의무를 다했을때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의무를 감당하지 못했을때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물으시죠.

저의 경우는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였을때 하나님은 제 영혼의 곤핍으로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의무를 다하였을때 저는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누리며 평안과 자유를 찾았던것을 경험했고 또 하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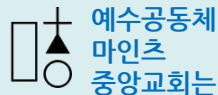
그러한 이유로 성경 필사라는 자유로운 의무에 대해 혼신을 다해 역지로 동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구요... - 000

초대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마인츠중앙교회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기쁨을 나누는 신앙공동체,
가족공동체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힘쓰는
예배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더불어 행복한, 이곳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예수공동체
마인츠
중앙교회는

:: 영원한 평안 ::

진정한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 존 칼빈

True peace will be found nowhere but
in the Christ.

- John Calvin

코로나 장기화로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불안과 불면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통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남겨두지 않은 때에 제자들 앞에 다가올 험난한 삶을 예상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평안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시련이 닥치면 깨져 버리는 세상의 평안과 구별되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평안입니다.

평안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마지막 대림절 주간에도 주님 안에서 하늘의 평안, 영원한 평안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기 도 제 목

- ❖ 2021년에 부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주어진 사명에 사랑과 성실함으로 충성되게 2022년을 준비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 ❖ 2022년 서리집사, 부서장, 교사, 구역장으로 임명된 모든 분들이 성령충만, 말씀충만하게 하옵시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 ❖ 주일학교와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 ❖ 코로나 감염율이 다시 급증하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삶과 예배가 위협을 받는 이 때에 소망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를 쉬지 않는 성도와 가정, 교회되게 하옵소서.
- ❖ 어려운 때를 만난 오늘을 사는 모든 성도들과 열방의 교회들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믿음과 성령충만함을 주옵소서.
- ❖ 하나님의 백성과 몸된 교회가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와 사랑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 ❖ 나승필, 박다니엘, 백경진, 서원민, 이만민, 이재은, 이정호선교사님의 삶과 가정을 지키시고 사역 가운데 선한 열매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승하는 **신앙공동체**입니다.
-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력 있는 **예배공동체**입니다.
- 주님의 보혈로 맺어진 행복한 **가족공동체**입니다.
- 건강한 교회 문화를 창조하는 **문화공동체**입니다.
-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 우리, 교회의
Vision 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예수공동체가 됩시다.